

## 직물용어 해설-13

### \* 플란넬(Flannel)

모, 면, 레이온, 견, 나일론, 비닐론,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사문직이라던가 평직으로 제직하여 편면이라던가 양면을 기모한 것이다. 원래 방모 직물로써 모직 플란넬을 플라노라고 하는 것이 많다. 위사를 방모사, 경사를 소모사, 면사, 레이온 또는 아세테이트 혼방사로 한 것도 있다. 소모사를 사용한 것을 소모 플라노라고 한다. 밀도는 비교적 성글다. 제직 후 가볍게 축융한 후 통상 양면으로 기모한다. 촉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맛과 탄력이 있다. 톱 염색이라던가 사염으로 한다. 무지물 외에 백색과 쥐색, 백색과 흑색, 백색과 짙은 갈색을 배합한 서리 내림 효과의 것이 많다. 줄무늬 격자가 들어간 것도 있다. 플란넬에 시행하는 마무리를 플란넬 마무리라고도 한다. 플리스 마무리, 브랑케트 마무리라고도 한다. 세융후 가볍게 축융하여 습식 기모한다. 고급품에는 쇠모하여 마무리한다. 직물면에는 깊이 있는 잔털로 덮여져 있다. 광택은 없다. 면 플란넬은 약칭하여 면넬이라고도 한다. 경사에는 보통 20's 단사를 위사는 기모를 행하는 관계로 10's라던가 8's 정도의 감연의 태번수의 단사를 사용한다. 위사를 20's 쌍사로 한 것도 있다. 쌍사 넬이라고도 한다. 능직이라던가 평직으로 조직한다. 양면이라던가 편면으로 기모한다. 표백, 무지염, 날염한다.

염색사로써 줄무늬라던가 격자 모양을 나타낸 것을 색양 넬, 직입 넬이라고 한다. 엠보싱 롤러로 날염호를 문혀 백색이라던가 무지염으로한 바닥에 무늬를 엠보스하여 압형과 날염을 동시에 실시한 것을 별진 넬이라고 부른다. 이지적인 아문젠 원단이나 조안직(birds eye) 원단에 편면 기모를 한 특수한 제품도 있다. 면이라던가 레이온 스테이플에 비닐론, 아크릴,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혼방한 플란넬도 만들어지고 있다. 드레스, 슈트, 코트, 스커트, 신사복, 안감, 침대 깔개, 네글리제, 내의 아동용품 등으로 사용한다.

### \* 플란넬 트윌(Flannel Twill)

모, 면,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

하여 종광을 3~4매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로써 평직 또는 능직이다. 경사는 약연사를 사용하고 정리가공을 할 때 플란넬 가공할 수 있도록 알맞은 내핑을 한다. 무지로 제작한 다음 후염하기도 하고 또 선염을 하여 줄무늬나 바둑판 무늬를 나타내기도 한다. 날염에 의하여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오버, 슈트, 드레스, 운동복 등의 안감용으로 사용한다.

\* 플란넬 가공(Flannel finish) : 기모 또는 축융 가공을 말한다. 기모는 면, 스프직물 등에 이용되고, 축융은 모직물에 이용한다. 모두 플란넬의 특징적인 표면의 태를 만든다.

\* 플러시(Plush)

작잠사, 모헤어, 견, 모, 면, 레이온,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침모직, 특수 침모 메리야스로 제작 또는 편성하는데 뽕빛과 마찬가지로 모경사로 만든 잔털이 직물면을 덮고 있는 침모직의 직물이다. 뽕빛 보다도 털 길이가 길고 밀도는 약간 성기고 잔털의 촉감은 거칠다. 울가미가 있는 것은 없고 모두 잔털이 세워져 있다. 모경사로는 인견사, 작잠사, 모헤어사, 용모사, 면사, 아마사, 나일론 방적사 등을 사용하고 지사는 경위사 모두 면사, 스프사 등을 사용한다. 무지염이라던가 날염한다. 면사라던가 비스코스 인견사를 아세테이트 인견사와 교직하여 제작한 후 일욕염으로 이색염색한 것도 있다. 선염의 문직물이나 엠보싱에 의하여 모양을 나타낸 것도 있다. 털을 문힌 문직물도 많다. 이것은 이미테이션 퍼(imitation fur)라고 부른다. 즉 잔털의 길이나 염색이나 날염의 색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열과 압력을 가하여 잔털을 재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소용돌이 무늬를 만들어 여러 가지로 하여 각각 표범, 바다표범, 물개, 두더지, 영소 등의 모피에 근사시켜 이것에 의한 아명을 상품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다. 일본에서는 해표(seal)의 털 일어섬에 근사시킨 실(seal skin)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요즘 특수한 메리야스 조직으로 긴 파일을 편성한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Plush는 프랑스어의 peluche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털이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pilus 에 어원이 있다. 용도는 다양하여 무릎 걸이, 실내장식, 쿠션, 의자덮개, 솜, 여성 아동용 오버, 모자, 여성용 모자, 동물 완구 등에 사용한다.

\* 플록킹(Flocking)

모, 면, 견, 레이온, 리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플록킹은 주로 나일론 sheer, taffeta, tricot 등에 식모 날염을 한 것에 사용된다. 이것은 단섬유에 대전시켜 먼저 바탕 천에 유연하고 내수성이 있는 접착제, 예를 들면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라텍스, 폴리 초산 비닐, 폴리 아크릴산 에스테르 수지 등을 도포 하여 여기세 0.1~5mm 정도로 가늘게 끊은 각종 짧은 섬유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식모 하는 것이다. 피가공물의 표면은 벨벳 또는 외모피상으로 되게 한다. 어떤 무늬로 식모 하는 것과 전면을 식모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식모 날염, 후자를 플록 코팅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착 날염에 의하여 만들어진 입체적인 모양은 복식 재료로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이 제품은 강하게 마찰하거나 솔질은 피해야 한다.

\* 피치스킨(Peach skin)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의 표면을 에머리 페이퍼 등으로 가공하여 복숭아 털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부여한 직물을 일컫는다.

\* 피케(Pique)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피케는 직물의 명칭임과 더불어 조직의 명칭이다. 그러나 현재 직물에서 피케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피케직(pique weave)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베드퍼드 코드직(Bedford cord weave)이라고 하는 다른 조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랑의 폭은 넓은 것이라던가 좁은 것 또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을 교호로 배열한 것 등 여러 가지이다. 두께도 약간 두꺼운 것으로부터 비교적 얇은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염색사를 사용하여 세로 줄 무늬를 나타낸 것도 많다. 특히 가는 이랑으로 한 것을 핀 웨일 피케(pin wale pique), 이랑 넓은 것을 와이드 웨일 피케(wide wale pique)라고 한다.

베드퍼드 코드직과 피케직과는 어느쪽이나 이랑을 만든다는 데는 근사하지만 아주 다른 것이다. 베드퍼드 코드직의 이랑은 일반적으로 경사 방향이지만 피케

직의 이랑은 위사쪽이라던가 물결 형태로 나타난다. 피케직은 이중직의 일종으로써 장력을 많이 준 경사에 의하여 위사 방향으로 두둑 또는 물결형이나 마음모꼴의 요철 모양이 있는 직물으로써 표경사와 접결경사 및 위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통상 표경사는 2올, 접결 경사는 한 올의 비율로 되어 있다. 별도의 빔을 사용한다. 표경사는 위사와 평직으로 조직한다. 접결경사는 장력을 강하게 하고 위사가 몇 올인가 타입될 때마다 위사의 위로 부출 되어 조직한다. 조직되지 않을 때는 위사의 밑으로 침강시켜두고 이렇게 제작하면 접결경사는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표경사와 위사의 평직으로 조직하고 있는 곳을 당겨 부출 시켜 위사 방향에 풍성한 이랑을 만든다. 물결형태의 이랑을 만든 것은 아트 피케라고 한다. Pique는 프랑스어으로써 piquer의 과거분사형, 영어의 pricked에 해당한다. 척자봉(刺子縫)의 의미이다. 피케직의 직물의 포면의 특징에 의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용도로는 드레스, 블라우스, 장식, 핸드백, 운동복, 베드 스프레드, 의자용 커버 등에 사용한다.

\* 핀 체크(Pin check)

경사에 백사 2올, 색사(주로 청색) 2올을 나란히 교대로 배열하고 위사에 색사(주로 청색)를 사용하여 평조직으로 짜고 표면에는 바둑무늬(주로 청색)를 나타낸 직물로 주로 작업복감 등으로 사용한다.

\* 핀턱(Pintuck)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벽직(襞織)으로 한 직물이다. 주름직은 경이조직의 변종으로써 직물면에 주름을 짜 넣은 효과를 나타내는 조직이다. 위사는 한 조이지만 경사에는 바닥 경사와 주름 경사를 각각 한 조씩 사용한다. 주름의 정경 빔은 필요에 따라 장력을 느슨하도록 한다. 바닥의 조직으로는 평직과 사자직이 있다. 평직일 때는 바닥 경사 편 경사는 한 올 두고 교호로 통경하여 배달한다. 우선 바닥 경사와 편 경사를 몰 밀어서 위사와 평직으로 조직시킨다. 일정 올 수만큼 위입된 후 이번에는 편 경사를 몰 밀어서 위사와 평직으로 조직한다. 직전에서 편 경사의 경사 빔의 장력을 느슨하게 바디침 한다. 그렇게 하면 직전의 부분은 바닥 경사의 위를 밀려 움직여서 위사

가 편 경사만을 조직하여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나서 처음과 같이 바닥경사, 편 경사를 몰 밀어서 위사와 평직으로 조직된다. 이것을 반복하면 직물면에는 가로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약간 크고 주름 사이가 약간 넓은 것을 퍽크직, 주름이 작고 주름의 사이도 좁은 것을 핀퍽이라고 한다. 주름 작은 예자용 와이셔츠에도 응용된다. 다운웨어, 블라우스, 아동복 등에 사용한다.

\* 허커백(Huckaback)

견,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모,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평직의 부분과 경사 또는 위사에 의하여 길게 펴서 나오는 부분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만든 것, 혁(huck)은 타월 직물로써 도비 직기로 봉소직의 효과를 낸 바스킷 조직의 직물이다. 위사는 약연사를 사용하여 흡수성을 좋게 한다. 군데군데 보오더를 짜 넣으며 중앙에 자카드로 상표를 넣거나 마크를 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색사를 사용한다. 고급품은 가는 실을 사용하고 밀도를 많이 넣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로 주자 조직의 줄무늬를 넣기도 한다. 혼방한 혁 타월은 경사에 면사, 위사에 아마사를 사용하며 보통은 중앙에 상표를 자카드로 짜 넣는다. 원래는 타월은 대마로 짠으나 그 후에 품질이 좋은 아마 천으로 만들었으며 현재는 여러 가지 섬유로 제작되고 있다. 운동복, 짧은 바지, 타월, 식탁용 등으로 사용한다.

\* 헤시안 직물(Hessian cloth)

황마사를 경사, 위사에 사용한 곤포, 마대용 평직물이다.

\* 헤어 라인(Hair line)

간격이 아주 좁고 가는 경무늬 평직물

\* 헤어코드(Haircord)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 의무지금로 경사를 종광과 바디 모두에 한올과 두 올씩을 교호로 끼워서 위사는 평직으로 타입하고 체결 경사로 넣은 위무직의 조직으로 한다. 사용하는 실은 면은 경위사에 30's라던가 40's 단사를 사용한다. 비교적 성긴 바닥의 것이지만 2올 나란히 넣은 경사가 위사를 부상시켜서 종방향으로 낮은 이랑을 나타내 보인다. 표백하여 백색인 채로 한다던가 무

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영국의 Total Broadhurst Lee Co.가 만들었다. 동사의 등록상표는 토브랄코(Tobralco)이며 여름용 여성복, 아동복, 셔츠 등으로 사용한다.

\* 헤어 클로스(Hair cloth)

① 모심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

② 가는 양모를 사용한 모사를 경사, 위사에 사용하여 바닥이 얇은 평직물,

\* 홈스핀(Homespun)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리넨, 라미, 모,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원래 수방한 섬도가 불균일한 굵은 방모사를 사용하여 거칠게 평직으로 수직기로 제작하여 축융 하지 않고 마무리한 방모 직물로써 소박한 풍격이 있는 직물이었다. 현재는 수방사를 모방하여 섬도를 불균일하게 하여 우아한 맛을 가지게 방적인 태번수의 기계 방적사를 이용하여 역직기로써 제작한다. 제작사는 보통 톱 염색이라던가 사염으로 한다. 이색으로 염색한 동아리 모를 혼방하여 어떻게든 수방, 수직과 같은 맛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도 진짜로 가정에서 수방사를 사용하여 수직한 것도 있으나 그것은 생산량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이름으로부터 받는 감과는 달리 기계 방적사를 역직기로써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직물의 풍미는 트위드와 아주 근사하여 혼동되는 것이 많다. 사실, 양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같고 다만 트위드가 사문직이고, 이것은 평직인 점만이 다르다. 경위사에 들어가는 넵(Nep), 노트(Knot) 등의 덩어리가 들어간 색사 즉 팬시 모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팬시 홈 스펀(Fancy home spun)이라고 한다. 여성 코트, 신사복, 운동복, 아동복, 창문 가리개, 가구덮개, 모자 등에 사용한다.

\* 흡색(Hopsacking)

모, 면, 리넨, 레이온, 폴리에스터, 견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주로 면 흡색은 부드럽고 성긴 바닥의 홈스핀 품의 면포이다. 조직은 평직으로써 제작사는 2~4급면으로 방적인 색이 선명하지 못한 태번수 단사이다. 면 스프 혼방도 있다. 제작사로 라티네사(쇄사)라든가 파연사(跛撚絲, 예를 들면 20's 심사에 5's의 바닥사를 꼬아 놓은 것)를 사용한 것도 있다. 모 흡색은 체비오트 질의 조경한 모질의

양모를 방직한 방모사를 2을 나란히 배열하여 평직으로써 사자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촉가밍 까칠까칠한 딱딱하고 바닥이 거친 촌스런 맛이 있는 튼튼한 직물이다. 흡색 트위드(hopsack tweed)라고도 한다. 극히 굵은 견의 주방사로써 제작한 흡색이 있다. 겉보기는 거치나 입어 보면 가볍고 부드러워 낭창낭창하다. 하이 패션의 고급품이다. 흡색은 원래 황마(jute)라던가 대마(hemp)의 극히 굵은 실로써 평직으로 제작한 거친 생지 마포로써 흡의 과일의 포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물은 현재 거래상 포장지(burlap)라고 불려져 흡색이라고는 불려지지 않는다. 결국 현재는 외관은 본래의 흡색에 근사한 것도 있으나 조직도사용하는 실도 참으로 다른 직물이 흡색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리조트웨어, 다운 웨어, 스커트 등에 사용한다.

\* 후라드(Foulard)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모 등의 섬유를 사용한 사문직이다. 원래 2/2능으로 제작하고 백색에 람색이라던가 흑색의 물방울을 날염한 울이 성기고 유연한 견직물을 가리킨다. 람색 바닥에 흰색 물방울을 발염한 것도 있다. 현재는 견 외에 여러 가지의 섬유로 제작되고 있다. 날염 무늬도 풀, 꽃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무지염도 있다. 견 후염물은 능우이중과 거의 같다. 선염의 격자무늬도 있다. 선염 격자 무늬의 견 후라드는 일본에서는 능태피터라고 한다. 아세테이트 인견과 비스코스 인견을 교직하여 이색염에 의하여 격자 무늬를 나타낸 것도 있다. 화합섬 후라드는 통상 광택을 가진 제직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두껍고 촉감이 부드러운 겉모양이 뛰어난 것이 많다. 조직은 2/2능 외에 3/3능도 있다. 넥타이, 넥카치프, 손수건, 블라우스, 드레스 등에 사용한다.

\* 후제트(Fujiette)

레이온,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지만 주로 경사를 무연의 인견사 위사를 스프사로써 제작하여 부토견에 근사한 맛을 갖게 한 것이다. 경사에는 원래 광택이 있는 멀티사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보통 비스코스사라던가 광택이 있는 멀티사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 제직사의 섬도는 보통 경사 120d, 위사 30's/1이다. 30's 단사를 위입하면 경사보다 다소 섬도가 굵게 되기 때문에 직물 면에

가벼운 이랑이 나타나 보인다. 백색인 채로 또는 무지염, 날염한다. 후제트는 현재 패션의 주류를 이루는 직물은 아니다. 그러나 경사에 필라멘트사, 위사에 방적사를 사용한 직물은 적당한 낭창낭창함과 팽만감을 구비하고 있어 우수한 맛을 가진 것이 많다. 경사에 나일론 필라멘트에 위사 폴리에스터/면 혼방사, 경사에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에 위사에 면 등 여러 가지 섬유 조합에 의한다. 새롭고 아름답고 기능성이 좋은 직물의 후제트의 발자취를 밟아 갈 것이다. 아동복, 보자기, 에이프런 등에 사용한다.

\* 횡코드(Whip Cord)

약 63°사문선을 나타내는 두꺼운 감의 직물. 면, 소모사, 인조 섬유 또는 혼방사를 쓴 밀도가 적은 직물로서 급사문의 경사가 표면에 나타난 능직물이다. 능선은 63°까지 있다. 능의 코드가 잘 나타나게 클리어 가공을 한다. 대단히 질기며 무지 염색을 한 것과 혼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면 횡 코드는 강하게 꼬임을 준 상강 단사를 경사로 하여 4배 증광의 경능으로 하고 보통 실켓 가공을 하며 방축 가공을 한다. 때로는 경사에 면, 위사에 소모사를 쓴 것도 있다. 상강(霜降)의 외가느른 단사 멜란지 연사에 있어서 백색 또는 옅은 색의 거친 실과 짙은 색의 거친 실로써 방직한 실을 쓰기 때문에 무지의 갈색이랑, 흑색의 위사를 사용한다. 옥스퍼드 그레이(Oxford Grey)는 경사에 회색과 흑색의 상강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흑색을 쓰며 뒷면을 가볍게 기모한다. 연하고 부피가 있도록 가공하여 색상도 때로는 암갈색, 다색의 상강옥스퍼드 그레이와 옅은 색 등에 쓰인다. 중량은 340.2~567/g/yd이다. 신사복, 슈트감, 승마복, 스포츠복, 제복, 자동차의 시트 커버 등에 쓰인다.